

어린이 책꽂이

▲역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사람들 73=세계사의 위인들을 사진자료와 충실한 설명으로 보여주는 인물백과사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등 세계적인 명화와 사진들은 위인들의 삶과 역사적인 사건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윙피스·2만2천원>

▲인현왕후전=조선시대 궁안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는 궁중문화의 대표작. 숙종의 두번째 왕비인 인현왕후가 희빈 장씨의 갖은 모략으로 폐위되지만, 결국 그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지고 장희빈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이야기는 어린이들에 관심 집약의 교훈을 안겨준다. <어린이 작가정신·8천500원>

▲박물관에서 놀자=우리 조상들의 옛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몇백년, 몇천년 전으로 떠나는 유쾌한 여행이야기.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와 조상들의 삶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1만1천원>

▲빈센트 반 고흐=다양한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위인들의 삶이 되짚어 보는 '역사를 만든 사람들' 시리즈. 자신의 재능을 한 차원 높은 곳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천재화가 고흐의 인생이 잘 나타나 있다. <다섯수레·9천원>

▲개가 무서워요=개를 좋아하면서도 무서워 하는 아이들에게 무서움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유머러스하게 그려져 있다. 유난히 개를 무서워 하는 주인공 레오나르트는 어느날 요정의 마법으로 개로 변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된다. <사계절·8천원>

3년만에 새 소설집 '제비를 기르다' 펴낸 윤대녕씨

삶의 정체는 그리움인가



“제주 생활 후 문학적 성숙 등장 인물 등 미세한 변화”

“제주도에서 2년을 보낸 뒤 문학적으로 조금 성숙해진 느낌입니다.” 소설가 윤대녕(45)씨가 지난 2004년 출간된 '누가 걸어간다'(문학동네 펴냄) 이후 3년 만에 새 소설집 '제비를 기르다'를 냈다. 지난 2003년 4월 갑자기 제주도로 떠난 후 만 2년 만에 북으로 돌아와 처음 낸 소설집이다. 소설집에는 제주도에서 썼던 단편 2개를 비롯해 모두 8편의 작품이 실렸다. 절반이 넘는 5편을 2006년 한 해 동안 써내려갔다. 글이 잘 써지기도 했지만 제주도에서의 생활이 약이 됐다 고 한다. 윤씨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기 좋은 곳에 지내며 여유롭게 살았던 것이 자기 관리의 시간이 됐던 것 같다”며 “제주도와 꼭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4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의욕, 독자에 대한 책임감 등이 생기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미세하지만 작품 속에서의 변화도 감지된다. '탕자'를 비롯한 몇몇 단편에는 죽음을 앞둔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세대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전에는 좀처럼 다루지 않았던 캐릭터다. “작품이 변한다는 것을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시선이 넓어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특히 노인이나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등은 확실히 예전과 조금 다르다. 제주도를 분기점으로 스스로 변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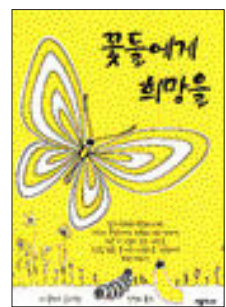
이번 소설집에서는 그리움을 동반한 슬픔을 애기하고 있다. 어쨌든 많은 슬픔이다. 죽음까지도. 윤씨는 작가의 말을 통해 “생의 한 가운데를 어두운 숲처럼 더듬더듬 관통하면서 나는 '그 모든 어찌할 수 없음'에 대한 억누를 수 없는 그리움을 자주 체험했다. 삶의 정체는 결국 그리움이었을까?”이라고 고백한다. 표제작 '제비를 기르다'의 주인공은 제비가 떠나는 날 어김없이 집을 나가는 어머니를, 그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가 드나들던 술집의 작부 '문화'를 그리워한다. 10여년 후에 만나 20년 동안 인연을 이어간 동명이인의 '문화' 역시 이루 어질 수 없는 그리움의 대상이긴 마찬가지다. '편백나무숲 쪽으로'에서는 35년 만에 옛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를, '탕자'에서는 주인공을 찾아 제주도에 왔다가 고모를 그리워한다. 무관심하거나 애써 외면하려 했던 대상에게서도 드러나는 은근한 그리움. '탕자'의 주인공은 고모의 죽음을 알리는 아버지에게 “왜, 그런 소식을 이제야 전하는 거냐고 조용하 따지듯” 묻는다. '낙타주머니'의 주인공은 너무 일찍 찾아온 친구의 죽음을 맞이한 뒤 마음과 몸이 동시에 앓는다. 하지만 소설 속 죽음들은 삶 쪽으로 열려 있다. 평론가 정홍수씨는 “죽음이 보이는 시간에 이르러 인물들은 고단하고 회한에 찬 삶을 '정화(淨化)'할 수 있는 순간과 만난다”고 말한다. <창비·9천800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임기

트리나 폴러스 '꽃들에게 희망을'

내가 살고 있는 고향, 곡성에서 어른들과 함께 책 읽는 모임이 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책 중에서도 동화책을 주로 읽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읽자고 했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에서는 논술이 중요하다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사화되는데, 시골에서 변변치 못한 논술학원조차 하나도 없는 곳에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뭔가 해줘야 할 게 아니라 강변을 했습니다. 책 읽는 습관을 들이기 위한 꼼수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지는 않았지만 책 읽는 어른들이 생겨났습니다. 동화책이 어린이만 읽는 책이 아니라 어린이부터 읽는 책이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책 한 권을 온 가족이 돌려 읽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때론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 본 가족들은 책임기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책이 바로 가족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임기입니다. 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입니다. 또 꿈수를 노립니다. 이 책은 많은 학교에서 권장도서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발간돼 200만부나 팔렸다고 합니다. 종종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독후감 심사를 하게 되는데 누군가 꼭 참여를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까닭은 책에 그

호랑나비 삶의 소중함



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림이 많으니 글이 흥얼흥얼한 것도 당연합니다. 맘 잡고 읽는다면 채 30분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속뜻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리적인 글자 수는 적지만 읽을 때에는 할 말이 많았으니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독후감으로 써 냈을 것입니다.

저자인 트리나 폴러스는 작가가 조각가, 환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환경운동을 하는 그림책 '꽃들에게 희망을'은 호랑나비에게 세상에 태어나 삶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야기입니다. 호랑나비는 단순히 먹고 자라는 것 이상을 바랍니다. 수많은 애벌레들이 기동을 만들고 그 위로 거어오르는데 힘들려 오릅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느냐, 아니면 짓밟히느냐. 이런 현실에 문득 의문을 품습니다. 사랑하는 노랑애벌레를 만나 그 기둥에서 내려서지만 결국 포기 할 수 없어 홀로 그 기둥을 다시 오릅니다. 맨 꼭대기에 올라서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뜻 '나비'란 말을 듣습니다. 징그러운 털투성이의 몸속에서 날개가 달린 나비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았습니까. 애벌레 기둥에서 내려서면서 나비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믿는 이도 이전 어쩔 수 없으며 체념을 합니다. 끝내 호랑나비라는 자신을 버리고 날개를 단 호랑나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한 이야기 같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는 모습과 겹쳐놓아, 나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초등학교 2학년 정도부터 읽어도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연령별에 따라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방학 동안에 책 한권을 가족이 함께 돌려 읽고 책에 대해 이렇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김성범 <아동문학가·섬진강 도깨비마을 총장>

마오의 출생·학창시절 진솔하게 기록

마오의 무전여행 샤오위 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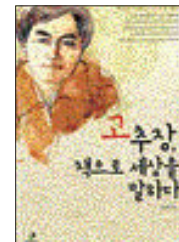
마오쩌둥은 '20세기관 진시황', '봉건정치를 끝낸 위대한 혁명가' 등 극단의 평가가 엇갈리는 중국의 지도자다. 마오쩌둥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샤오위 박사가 쓴 '마오의 무전여행'은 이같은 평가의 이면에 가려진 마오쩌둥의 출생과 학창 시절 등 청년 마오와 함께한 10년을 진솔하게 기록한 회고록이다. 프랑스·중국 교육협회 부회장을 지낸 샤오위 박사가 중국 창사(長沙)의 제1사범학교에서 처음으로 만난 마오쩌둥은 조국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꿈으로 가득찬 젊은이였다. 곧바로 의기투합한 둘은 중국 공산당의 모태인 신민화회를 조직하고, 중국남부를 무전여행한다. 여행을 통해 그들은 민중의 삶을 체험하게 되고, 대안을 고민한다. 저자는 중국 공산당의 모태가 된 신민화회를 설립한 이야기, 조국의 현실과 미래를 놓고 마오와 치열하게 펼쳤던 논쟁 등을 통해 청년 마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마오쩌둥은 이 과정에서 정치권력을 통해 세계를 변혁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프리미어프레스·1만3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고전 속에서 찾은 자유·행복의 정의

고추장, 책으로... 고병권 저음

'니체의 위험한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2003)와 '니체, 천개의 눈 천개의 길'(2001) 등 니체에 대한 독특한 해석으로 주목을 받은 소장 철학자 고병권 씨가 인문·사회에세이집 '고추장, 책으로 세상을 말하다'를 썼다. 제목을 설명하기 위해 우선 '고추장'의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 먹는 고추장이 아니라 저자가 속해 있는 연구공동체 '연구공간 수유+너머'에서의 직책과 성이다. 추장, 대표라는 용어가 싫어 구성원들이 생각해낸 말이다. 책 1부에서는 자유·행복·도덕·기억·역사·사실·여성 등 14가지 개념에 대해 고전을 통한 실천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저자는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통해 자유가 선택이 아닌 능력의 문제란 것을 깨달았고,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인권은 공동체에 살아갈 권리를 가지는 것이란 사실을 알았다. 2부 '세상 속으로'에서는 장애인 이동권과 생존권, 농민의 죽음, 빈곤 및 양극화, 한미FTA 등 소수의 일로 치부돼버리는 현실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내놓고 있다. <그린비·1만2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domestic products with text: '국내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and images of various household appliances.

Advertisement for 'Kukje Wosik San-eup (Co., Ltd.)' with text: '국제 외식산업(주)' and images of people at a festival.